

# ‘베트남발 한류’ 500억대 말산업 수출 물꼬

환경분석·경마장 운영 등 노하우 전수  
베트남 정부, 지역발전·일자리 기대  
불법도박 자금 1조5190억 유입 예상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12월 베트남 DIC사와 호치민시 경마장 건설 및 운영 1차 자문사업을 완료했다. 6월 김낙순 회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건설부총리와 재정기획부장관을 만나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만이다.

베트남 정부는 2017년 3월 경마 및 발매사업 관련 법안을 공표했다. 호치민과 하노이에 경마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베트남이 경마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세 확보와 지역개발 외에 불법도박과도 관련이 깊다. 베트남은 현재 불법도박으로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다. 정부규제에도 불구하고 축구, 카지노 등에 불법베팅이 일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2023년 호치민 경마장이 완공되면 불법도박에서 경마로 유입되는 자금이 연 13억 달러(약 1조 5190억 원, 2019년 기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2만5000개를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1차 자문은 경마장 건설을 위한 환경 분석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베트남 DIC사와 호치민시 경마장 건설 및 운영 1차 자문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베트남 경마장 건설 및 운영 자문을 통해 한국 경마의 동남아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치·경제·사회적 특징, 과거 경마시행 사례, 정부동향 및 국민성향, 경쟁사업 현황 등을 파악했으며 경마시행을 위한 주요 지표도 설정했다.

자문 내용을 기반으로 마사회는 내년 1월에 베트남과 2차 사업을 체결하기로 했다. 경마장 건설, 인력·경주마 운영, 인

프라 구축 등 세부 플랜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DIC사가 경마장 설계를 위탁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도 설계자문을 체결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에 그치지 않고 500억 원 규모의 경주마수출

및 경마운영시스템 공급, 전문인력(기수·조교사 등) 양성 및 현지취업 지원 등 국내 말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주 중계실황 수출, 해외 취업지원 등 개별사업별로 해외진출은 많았지만, 베트남처럼 종합적인 해외사업은 최초이다. 마사회는 베트남 진출이 향후 동남아에 한국경마를 수출할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치민 경마장건설을 담당하는 푸엔 DIC사 회장은 “6월 한국마사회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자 베트남 현지에서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2023년 개장에 차질이 없게 2차 자문을 통해 한국의 선진 경마지식과 기술을 완벽히 전수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한국의 경마체계가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경주마에서 발매장비, 인력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수출이 연계를 수반에 없다. 경주중계 수출과 더불어 경마시스템 자문사업은 한국경마의 외연을 크게 확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마가 베트남에서 대중스포츠로 사랑받고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한국경마가 해외 수출사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말산업 국가자격 관련법령 개정

앞으로 말산업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일반병원서도 마약류 및 향정신·의약품 중독 검사결과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마약류 및 향정신·의약품 중독여부 판별검사기관을 일반병원으로 확대하는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이 11월 14일자로 개정됐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유무는 법에 명시된 치료 보호기관에서만 진단이 가능했다. 해당기관은 전국에 22곳이지만 일반인이 대상인 기관은 14곳에 불과했다. 기관별로 진단비용이 천차만별이고 검사항목 차이가 커서 응시자들의 불편을 가중했다.

## 말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한국마사회 말사진 공모전 ‘말(馬) 그리고 휴식’의 수상작 전시가 20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대상은 받은 양경만의 ‘겨울나기’를 비롯해 42점의 입상작을 전시한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말이 풀을 뜯거나 서로 고개를 맞댄 모습, 무리가 평원을 거니는 모습, 따사로운 햇살 아래 조는 모습 등 공모전 주제 휴식에 맞는 모습들이다. 한국마사회 지방사업장과 지사에서 순회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경마공원, 21~22일 성탄절 이벤트

한국마사회는 서울 경마공원에서 크리스마스 앞둔 21~22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뽕! 포너랜드! 겨울 간식 대전’에서는 군고구마, 호빵, 호떡, 붕어빵, 꼬치어묵과 따뜻한 차 등 겨울간식 5종사를 제공한다. 21일과 22일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방문객 1인당 무료 교환쿠폰 한 장을 제공한다. SNS 업로드, 다투, 경품조사 이벤트를 통해서도 예코백, 열쇠고리, 머그컵 등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정용운 기자

## ‘심장의고동’ vs ‘삼성불패’...트레이너스컵 주인공은?

### 22일 서울 경마공원 ‘제12경주’

22일 한국마사회 서울 경마공원에서 조교사의 업적을 기념하는 경주인 트레이너스컵(Trainers' Cup)이 열린다. 제12경주로 치러지는 1800m 장거리로 1등급 경주마만 출전할 수 있다. 조교사의 명예를 걸고 펼쳐지는 만큼 각 마방의 기대주들이 출전을 예고했다.

●**심장의고동(수말, 3세, 한국, 레이팅 85, 오종환 마주, 지용철 조교사, 승률 50%)**  
지금이순간의 자마로 올해 코리안더비

2위, 대통령배 3위를 했다. 7월 일간스포츠배 마지막 직선주로부터 2위마와의 차이를 2마신에서 5마신까지 벌리며 압도적으로 우승했다.

●**삼성불패(거세마, 5세, 미국, 레이팅 100, 김병진 마주, 박대홍 조교사, 승률 21.7%)**  
장거리 주력마로 최근 1800m 세 경주에서 우승 1회, 2위 2회를 기록했다. 10월 청담제왕, 스프링백 등 이번 경주의 출전마들과 맞붙어 우승한 경험이 있다. 꾸준히 1800m를 1분 56초대에 주파하며 기세가 좋다. 레이팅이 89에서 100까지 올랐

으나, 이번 경주 부담중량은 평소 수준인 53kg이다.

●**청담제왕(수말, 4세, 미국, 레이팅 103, 삼성정 마주, 서인석 조교사, 승률 17.4%)**

복승률 43.5%, 연승률 56.5%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520kg이 넘는 큰 체구지만 직선주로부터 힘있는 추임력이 특징이다. 특히 11월 출전했던 1400m 경주에서 강우로 주로상대가 나뒀지만 직선주로부터 7두를 제치고 우승했다. 1800m는 두 번 출전했지만 모두 부진했다.

●**스프링백(거세마, 3세, 미국, 레이팅 95, (주)디알엠씨티 마주, 안병기 조교사, 승률 30.8%)**

단거리 중점으로 출전하며 코리안스프린트에서 경력을 쌓았다. 10월 첫 장거리 경주에서는 5위의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다. 부담중량이 당시보다 4kg 적어 자존심 회복을 노린다.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순위상금을 획득할 정도로 꾸준함이 장점이다.

●**슈퍼사스(거세마, 4세, 미국, 레이팅 87, 김창식 마주, 리카디 조교사, 승률 42.9%)**

올해 출전한 9경기에서 4번이나 우승했다. 특히 1800m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9월 JRA 트로피 특별경주에서 유력마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최근 1등급 경주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1800m가 주력거리에서 분위기 반동을 노린다. 정용운 기자



## 축구팬 58% “상승세 토트넘, 첼시 꺾는다” “스포츠토토 외 모든 스포츠베팅은 불법”

###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중간집계 EPL 7경기·라리가 7경기 대상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1일(토)부터 23일(월)까지 벌어지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7경기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토트넘-첼시(12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58.01%가 토토팀의 우승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양 팀의 무승부 예측은 23.73%로 나타났고, 원정팀 첼시의 승리 예측은 18.26%로 집계됐다.

현재 리그 4위 첼시는 승점 29점(9승2무6패)을 기록 중이고, 토트넘은 승점 26점(7승5무5패)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토트넘의 기세가 무섭다. 포체티노 감독 경질 전 리그 14위까지 추락했던 순위는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 5위까지 치솟았다. 최근 경기 역시 번리에게 5-0의 대승을 거뒀고, 울버햄튼 원정에서도 2-1로 이겨 2연승을 질주하고 있다. 이번 첼시와의 승부까지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크리스마스전 리그 4위를 차지할 수 있는 토트넘이다.

반면 램파드 감독이 이끄는 첼시는 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중하위권 팀들인 에버턴(리그 16위)과 본머스(14위)에게 연이어 패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번 시즌 태미 에이브러햄(리그 득점 공동 2위·11골)이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순위 경쟁에 있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먼 첼시다.

이어 노리치시티와 만나는 울버햄튼은 62.64%를 차지해 EPL 중 가장 높은 승리 예상 지지를 받았다. 양 팀의 무승부 예측은 19.67%를 차지했고, 홈팀 노리치시티의 승부 예측은 17.69%로 나타났다.

안방에서 라리가 아틀레틱 빌바오와 만나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예측은 77.53%로 집계돼 이번 회차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양 팀의 무승부 예측과 빌바오의 승리 예측은 각각 14.31%와 8.16%로 나타났다. 레알 마드리드는 승점 36점(10승6무1패)로 현재 리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리그 최근 7경기에서도 5승2무를 거두며 지지 않는 경기를 해온 레알 마드리드는 19일 펼쳐진 바르셀로나와의 엘 클라시코 дер비에서도 0-0 무승부를 거뒀다.

한편 이번 승무패 44회차는 21일(토) 오후 9시2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티맨 이외의 스포츠베팅은 모두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불법스포츠도박 및 유사발매 행위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티맨(www.betman.co.kr)이 유일하다. 이외에 유사 사이트나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경우 판매 수익금의 대다수가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며, 이는 체육 인프라 확대는 물론 프로스포츠와 유소년, 장애인, 생활체육 등 대한민국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반면 불법스포츠도박 등 유사발매사이트의 경우 높은 사행성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 의무 또한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 지하



자금 조성의 창구로도 이용되는 등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불법스포츠도박 또는 유사발매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신고센터(www.cleansports.kspo.co.kr/1899-1119)로 신고하면 된다.

## 농구토토 3개 회차 20일 동시발매 마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취케이토토(www.ktoto.co.kr))가 20일(금) 오후 6시50분에 농구토토 승패 및 매치, W매치 게임을 동시에 발매 마감한다.

먼저 높은 배당률로 인기를 끌고 있는 농구토토 승패의 경우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국내프로농구(KBL) 5경기와 미국프로농구(NBA) 9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18회차를 발매한다. 승패의 경우 홈팀을 기준으로 6점차 이상의 승리와 5점차 이내의 승부, 그리고 6점차 이하의 패배를 맞으면 된다.

KBL 1경기를 대상으로 전만 및 최종 점수대를 맞히는 매치 게임은, 20일 오후 7시에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전주 KCC-부산 KT전을 대상으로 63회차를 발행한다. KCC와 KT의 경우 나란히 13승10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결과에 따라 순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전력은 거의 비슷하지만, 원정팀 KT는 에이스이자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던 허훈이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경기로 꼽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자프로농구(WKBL)를 대상으로 하는 W매치 96회차는 삼성생명과의 한은은행의 맞대결로 농구팬을 찾아가고 있다.